

疏泄의 概念, 病理 및 病證에 關한 文獻的 考察

尹英姬, 金聖勳, 林樂哲*

I. 緒 論

“疏”字는 疏導를, “泄”字는 發泄을 意味하는 것으로²⁾, 疏泄作用은 舒展 및 通暢을 主로 하는 肝의 生理機能으로 認識되고 있다.¹⁾

疏泄에 關하여 《素問 五常政大論》³⁾에서 “發生之氣, 是謂啓陳, 土疏泄, 蒼氣達”이라고 最初로 言及되었지만 단지 土疏泄로 言及되고 木疏泄로는 言及되지 않았으며, 內經以後 宋代까지는 疏泄이 肝의 機能이라는 言及이 없었다고 王은 主張하고 있다.²⁾

그 후 朱⁷⁾는 “主閉藏者腎也, 司疏泄者肝也”라 하였고, 戴思恭이 “肝爲陽主疏泄”이라고 하여 비로서 肝과 疏泄과의 關係가 言及되었으²⁾, 唐⁵⁾은 “木之性主于疏泄 食氣入胃 全賴肝木之氣以疏泄之而水穀乃化”라 하여 疏泄作用이 脾胃의 消化作用에 影響을 준다고 하였다.

最近에는 疏泄作用의 範圍를 調暢氣機, 血液運行, 物質代謝, 精神情志活動 등으로 擴大解釋한 나 있고⁹⁾, 疏泄失調가 특히 肝氣證과 肝鬱證을 招來하는 主要病理로 報告¹⁻³⁰⁾되고 있지만 아직도 疏泄의 概念과 疏泄失調로 인한 病理 및 病證에 關하여 明確히 整理된 文獻이 많지 않다.

이에 著者는 疏泄의 概念과 疏泄失調로 인한 病理 및 病證을 보다 明確히 밝히는 것이 韓方 臨床에 도움이 될 것으로 思料되어 歷代文獻에 나타난 疏泄의 概念과 病理 및 病證을 綜合의로 比較檢討하였던 바 얻은 바가 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病理學教室

II. 本 論

1. 疏泄作用에 關한 歷代醫家說

1) 黃帝內經⁹⁾

<五常政大論>

發生之紀 是謂啓陳，土疏泄 蒼氣達。

<寶命全形論>

土得木而達。

<氣交變大論>

歲木太過 風氣流行，脾土受邪 民病飧泄食減。

<舉痛論>

怒則氣上……怒則氣逆 甚則嘔血 乃全泄 故氣上矣。

2) 格致餘論⁷⁾

主閉藏者腎也，司疏泄者肝也。二臟皆相火 而其系上屬於心。心君火也 爲物所感則易動。心動則相火亦動。動則精自走，相火翕然而起，雖不交會 亦暗流而疏泄矣。

3) 石室秘錄¹³⁾

土得木以疏泄 則土有生氣矣。

4) 辨證錄⁹⁾

血藏肝中 精涵腎內 若肝氣不開則精不能泄。

5) 類證治裁⁸⁾

肝木性升散，不受遏鬱，鬱則經氣逆 爲咳 爲脹 爲嘔吐……皆肝氣衝激也……治肝氣 先疏其鬱……大抵肝氣剛臟 職司疏泄 用藥不宜剛而宜柔 不宜伐而宜和。

6) 醫學求是⁹⁾

東方 肝木左升之路 然木性疏性 鬱極必發 是以大吐。

7) 血證論⁵⁾

肝屬木 木氣衝和條達 不至過鬱則血脈得暢。

木之性 主于疏泄 食氣入胃 全賴肝木之氣 以疏泄之而水穀乃化 肝之清陽不升則不能疏泄求穀 滲瀉中滿之證在附難免。

8) 中西醫匯通醫經精義⁹⁾

肝內膈膜 下走血室 前走膀胱 後達大腸 厥陰肝脈 又外繞行肝門 大腸傳道 全賴木氣疏泄。

9) 謙齋醫學講稿¹²⁾

肝氣 生理和病理名詞 亦爲病名……肝氣證 是作用太强 疏泄太過 故其性橫逆。肝氣鬱結 是作用不及 疏泄無能 故其性消沈。同時以肝氣證 能犯胃克脾，乃可以用木克土 肝鬱也能影響脾胃 系屬木不克土。

10) 讀醫隨筆¹¹⁾

肝之性 喜升而惡降 喜散而惡斂

11) 醫貫¹⁰⁾

東方先生木 木者 生生之氣 即火氣 空中之火 附于木中 木鬱則火亦鬱于木中矣。火鬱土自鬱 土鬱金亦鬱……六鬱之中 首重氣鬱 氣鬱多因于肝失疏泄。

12) 醫學摘粹⁴⁾

水性閉蟄而火性疏泄，閉蟄則善藏 疏泄則善出。

13) 臨證指南醫案⁹⁾

氣鬱不舒 木不條達。

14) 醫案²¹⁾

肝主疏泄，肝病則有升無降，失其疏泄之職，小溲僅通而短赤特甚 此證病發時不得大便，乃肝主疏泄，肝受病則不得疏泄（中燥證）

15) 存存齋醫話稿續集²¹⁾

惟肝主疏泄，若鬱結而肝氣不舒，則當遵木鬱達之旨。

16) 中醫病機治法學¹⁴⁾

肝司升發疏泄的生理功能有關。人體衛氣的升發，血量的調節，水津的通調，陰精則藏泄，都與肝的疏泄功能緊密相關……疏泄太過，是指多種因素導致肝臟疏泄功能亢進或衰退，成爲精血津液外泄的病機……肝氣鬱結，是指肝氣疏泄不及，升發之機受阻的病理改變。

17) 肝膽論⁹⁾

肝主疏泄，喜條達，疏泄之含義頗廣……疏泄又是肝的活動體現，并非局限于氣機調暢而言，環涉及到血液運行，物質代謝，精神活動，月經同態等一系列的生理機能。

18) 中醫學問答⁶⁾

疏泄，即疏通宣泄的意思。肝主疏泄是指肝氣具有疏，展升發的生理功能，故稱“肝喜條達”。肝氣的正常疏泄，是氣機調暢，升降正常的重要條件，由此人體臟腑的功能才能正常協調，氣機不調，升降失常，即稱爲“氣機失調”。肝主疏泄的功能主要體現在：① 分泌膽汁幫助消化……② 調暢氣機……③ 調節情志……此外，有的認爲肝主疏泄，環有疏利三焦，通調水道的功能。

2. 疏泄作用에 關한 現代臨床家の 說

1) 朱邦賢²⁷⁾

肝主疏泄의 理論은 內經에서 부터 來源된 것이 아니며 肝主疏泄의 主要作用은 調暢情志, 脾胃의 正常的 消化機能維持, 通利三焦, 通調水道 및 女子의 月經과 男子의 排精活動과 有關하다.

2) 吳敦序²⁰⁾

肝主疏泄의 理論은 內經 素問 五常政大論의 “土疏泄 蒼氣達”에서 부터 由來한다. 肝主疏泄의 機能은 精神, 情志活動을 調節하며, 全身氣機를 調暢시키고, 脾胃에 影響 주어 水穀을 運化하여, 膽汁의 分泌와 排泄을 促進한다.

3) 王峰²¹⁾

“疏泄”은 內經 五常政大論에서 부터 由來하였는데 이는 肝主疏泄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肝과 疏泄과의 關係에 대한 言及은 朱丹溪가 肝司疏泄이라고 한데서 부터 由來되었다. 肝主疏泄의 意味는 脾胃가 飲食物을 消化하는 作用, 二便을 協助하는 作用, 氣機의 調暢, 情志의 調暢 등의 內容과 精液排泄을 뜻한다.

4) 蒲曉東²⁸⁾

肝의 疏泄機能은 氣機를 調暢하고, 精血과 津液의 輸布 및 代謝를 調節하며, 脾胃의 運化機能을 促進하고 調節한다.

5) 饒宏孝¹⁸⁾

肝의 性은 條達하고 疏泄을 主하므로 全身臟腑, 氣血, 經絡의 機能을 正常的으로 한다. 肝의 疏泄機能은 疏調氣機하며 脾胃의 運化作用을 促進한다. 肝主疏泄機能은 全身氣機를 流暢케 하여 精血津液의 正常運行을 推動시키며 脾의 運化, 心主血, 肺主氣, 腎藏精主水하는 機能과도 密接한 關係가 있다.

6) 明宇¹⁵⁾

疏泄은 非病理性으로 內經에서 言及되었던 疏泄의 意味는 肝主疏泄의 生理機能을 뜻하는 것이며, 肝主疏泄이란 肝臟理論이 發展한 것이다.

7) 張震²⁶⁾

肝은 體陰而用陽인데 이는 肝은 藏血의 臟器이며 疏瀉, 升發 등의 作用이 있어 能히 人體의 氣機를 舒展하고 情志를 疏暢하며 疏利氣機(특히 中焦脾胃氣機를 말함), 疏調月經, 疏瀉膽汁 등의 作用을 말한다.

8) 閻自力¹⁹⁾

情志傷肝은 主로 肝의 疏泄機能에 影響을 미쳐 疏泄太過하거나 疏泄不及하는데 太過者는

肝氣라 하고 不及者는 肝鬱이라 한다.

9) 魏康伯²²⁾

肝의 疏泄機能이 正常이면 脾의 運化作用을 健旺케 한다.

3. 疏泄作用과 關聯된 現代臨床

1) 俞長榮²³⁾

肝主疏泄機能이 失調된 것을 木鬱이라 表現한다. 木鬱로 나타나는 病證으로는 脇痛, 胃脘脹痛, 腹痛, 泄瀉, 閉經, 梅核氣, 乳核, 奔豚氣, 疝氣 등이 나타난다.

2) 葉挺興 外¹⁷⁾

肝主疏泄機能이 失調되면 疏肝法을 活用하여 治療하는데 急性乳腺炎, 早期肝硬化, 急性乳腺炎, 急性肝炎, 急性膽囊炎, 膽石症, 膽道蛔蟲, 膽汁返流性胃炎에 疏肝法을 活用하여 有效한 結果를 얻었다.

3) 李克勤²⁴⁾

肝의 疏泄機能이 失調하면 胸脇痛, 乳房痛, 少腹脹痛, 或月經痛, 經閉 등이 나타난다. 이러한 疏泄機能이 失調되어 나타나는 病證에는 疏肝法을 活用한다.

4) 胡國堂²⁹⁾

肝의 疏泄機能이 失調되면 脇肋支滿, 小腹脹疼, 女子月經不調, 中脘痞滿, 納穀不馨, 噯氣頻繁, 大便不暢 등의 病證이 나타난다.

5) 張問渠 外²⁵⁾

肝의 疏泄機能이 失調하여 나타나는 月經不調에 疏肝解鬱法을 用하여 治療하였다.

6) 徐登國¹⁶⁾

肝의 疏泄機能失調는 肝氣와 肝鬱로 表現할 수 있는데 肝氣는 疏泄機能이 太過한 것으로 肝氣의 病證으로는 急躁易怒, 胸脇滿疼痛, 少腹脹痛 등이 나타나며, 疏泄機能이 不及한 肝鬱證으로는 胸悶脹痛, 腹脹噯氣, 食慾不振, 婦女月經不調, 經期乳房脹痛 등이 나타난다.

7) 胡敏燠³⁰⁾

肝의 疏泄機能이 失常하여 肝氣가 不升하면 胸悶脇痛, 少腹滿, 噯氣嘔惡, 太息矢氣, 精神抑鬱, 目光呆滯, 耳聾閉塞心中煩悶, 手足厥冷, 脊背惡寒, 小溲淋瀝, 或遺溺尿陽, 陽痿疝氣, 泄利下重 등의 症이 나타난다.

8) 閻自力¹⁹⁾

疏泄太過로 인한 肝氣證은 煩躁易怒, 胸脇脹滿, 胸腹痛 등의 證이 나타나고 疏泄不及으로 인한 肝鬱證은 胸腹滿悶, 少言寡語, 意志消沈, 善太息 등의 證이 나타난다.

9) 魏康伯²²⁾

肝의 疏泄機能이 失調하여 나타나는 胃十二指腸潰瘍, 胃炎, 慢性結腸炎, 胃下垂, 慢性肝炎, 慢性膽囊炎, 慢性胰 腺炎 등의 疾患에 疏肝理氣法을 活用하여 有效한 結果를 얻었다.

〈圖表 1〉 疏泄作用에 關한 歷代醫家說

文 獻	內 容
黃 帝 內 經	五常政大論：土疏泄 蒼氣達， 寶命全形論：土得木而達， 氣交變大論：歲木太過……脾土受邪 民病發泄食減， 舉痛論：怒則氣上……怒則氣逆 甚則嘔血 乃發泄。
格 致 餘 論	主閉藏者腎也，可疏泄者肝也。
石 室 秘 錄	土得木而疏通 則土有生氣矣。
辨 證 論	血藏肝中 精涵腎內 若肝氣不聞則精不能泄。
類 證 治 裁	肝木性升散，不受遏鬱，鬱則經氣逆 爲咳 爲脹 爲嘔吐……大抵肝氣剛藏 職司疏泄。
醫 學 求 是	本性疏性 鬱極必發 是以大吐。
血 證 論	木之性 主于疏泄 食氣入胃 全賴肝木之氣 以疏泄之而水 穀乃化 肝之清湯不升則不能疏泄水殺。
中 西 醫 醫 匯 通 醫 經 精 義	大腸傳導 全賴木氣疏泄。
謙齋醫學講稿	肝氣證 是作用太强 疏泄太過……肝氣鬱結 是作用不及 疏泄無能
設 醫 隨 筆	肝之性 喜升而惡降 喜散而惡斂
醫 貫	氣鬱多因于肝失疏泄
醫 學 摘 粹	水性閉蟄而火性疏泄 閉蟄則善藏 疏泄則善出
臨證指南醫案	氣鬱不舒 木不條達
吳 鞠 通 醫 案	肝主疏泄 肝病則有升無降 失其疏泄之職 小溲僅通而短赤特甚 此證病發時不得大便 乃肝主疏泄 肝受病則不得疏泄
中 醫 病 機 治 法 學	肝司升發疏泄的生理功能有關 人體衛氣的升發，血量的調節水津的通調，陰精則疏泄
肝 膽 論	肝主疏泄……氣機調暢而言，還涉及到血液運行，物質代謝，精神活動，月經同態等
中 醫 學 問 答	肝主疏泄的功能……分泌膽汁幫助消化……調暢氣機……調節情志……此外……還有疏利三焦，通調水道

〈圖表 2〉 疏泄作用에 關한 現代臨床家の 說

醫 家	內 容
朱 邦 賢	肝主疏泄의 理論은 內經에서 부터 來源된 것이 아니며 肝主疏泄의 主要作用은 調暢情志, 脾胃의 正常的 消化機能維持通利三焦, 通調水道 및 女子의 月經과 男子의 排精活動이다.

吳 敦 序	肝主疏泄의 理論은 內經 素問 五常政大論에서 由來한다. 肝主疏泄의 機能은 精神, 情志活動을 調節하며, 全身氣機를 調暢시키고, 脾胃에 影響을 주어 水穀을 運化하며, 膽汁의 分泌와 排泄을 促進한다.
王 峰	“疏泄”은 內經 五常政大論에서 부터 由來하였는데 이는 肝主疏泄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肝과 疏泄과의 關係에 對한 言及은 朱丹溪가 肝司疏泄이라고 한데서 부터 由來되었다. 肝主疏泄의 意味는 脾胃가 飲食物을 消化하는 作用, 二便을 協助하는 作用, 氣機의 調暢, 情志의 調暢 등의 內容과 精液排泄을 뜻한다.
蒲 曉 東	肝의 疏泄機能은 氣機를 調暢하고, 精血과 津液의 輸布 및 代謝를 調節하며, 脾胃의 運化機能을 促進하고 調節한다.
饒 宏 孝	肝의 性은 條達하고 疏泄을 主하므로 全身臟腑, 氣血, 經絡의 機能은 正常的으로 한다. 肝의 疏泄機能은 疏調氣機하며 脾胃의 運化作用을 促進하고 全身氣機를 流暢케 하여 精血津液의 正常運行을 推動시키며 脾의 運化, 心主血, 肺主氣, 腎臟精主水하는 機能과도 密接한 關係가 있다.
明 宇	內經에서 言及되었던 疏泄의 意味는 肝主疏泄의 生理機能을 뜻하는 것이며, 肝主疏泄이란 肝臟理論이 發展한 것이다.
張 震	肝은 體陰而用陽인데 이는 肝은 藏血의 臟器이며 疏瀉, 升發 등의 作用이 있어 能히 人體의 氣機를 舒展하고 情志를 疏暢하며 疏利氣機, 疏調月經, 疏瀉膽汁 등의 作用을 달한다.
閔 自 力	情志傷肝은 主로 肝의 疏泄機能에 影響을 미쳐 疏泄太過하거나 疏泄不及하는데 太過者는 肝鬱라 하고 不及者는 肝鬱이라 한다.
魏 康 伯	肝의 疏泄機能이 正常이면 脾의 運化作用을 健旺케 한다.

〈圖表 3〉 疏泄作用失調로 인한 病證

醫 家	內 容
俞 長 榮	肝主疏泄機能이 失調된 것을 木鬱이라 表現한다. 木鬱로 나타나는 病證으로는 脇痛, 胃脘脹痛, 腹痛, 泄瀉, 閉經, 梅核氣, 乳核, 奔豚氣, 疝氣 등이 나타난다.
葉 挺 輿 外	肝主疏泄機能이 失調되면 疏肝法을 活用하여 治療하는데 急性乳腺炎, 早期肝硬化, 急性이 腺炎, 急性肝炎, 急性膽囊炎, 膽石症, 膽道蛔蟲, 膽汁返流性胃炎에 疏肝法을 活用하여 有效한 結果를 얻었다.
李 克 金	肝의 疏泄機能이 失調하면 胸脇痛, 乳房痛, 少腹脹痛, 或月經痛, 經閉 등이 나타난다. 이러한 疏泄機能이 失調되어 나타나는 病證에는 疏肝法을 活用한다.
胡 國 堂	肝의 疏泄機能이 失調되면 脇肋支滿, 小腹脹疼, 女子月經不調中脘痞滿, 納穀不馨, 噯氣頻繁, 大便不暢 등의 病證이 있다.
張 問 渠 外	肝의 疏泄機能이 失調하여 나타나는 月經不調에 疏肝解鬱法을 用하여 治療하였다.
徐 登 國	肝의 疏泄機能失調는 肝氣와 肝鬱로 表現할 수 있는데 肝氣는 疏泄機能이 太過한 것으로 肝氣의 病證으로는 急躁易怒, 胸脇滿疼痛, 少腹脹痛 등이며, 疏泄機能이 不及한 肝鬱證으로는 胸悶脹痛, 腹脹噯氣, 食慾不振, 婦女月經不調, 經期乳房脹痛 등이다.
胡 敏 仙	肝의 疏泄機能이 失常하여 肝氣가 不升하면 胸悶脇痛, 少腹滿, 噯氣嘔惡, 太息矢氣,

	精神抑鬱, 目光呆滯, 耳聾閉塞心中煩悶手足厥冷, 脊背惡寒, 小便淋瀝, 或遺溺尿頻, 陽痿疝氣, 泄利下重 등의 症이 나타난다.
閻 自 力	疏泄太過로 인한 肝氣證은 煩躁易怒, 胸脇脹滿, 胸腹疼痛 등의 證이 나타나고 疏泄不及으로 인한 肝鬱證은 胸腹滿悶, 少言寡語, 意志消沈, 善太息 등의 證이 나타난다.
魏 康 伯	肝의 疏泄機能이 失調하여 나타나는 胃十二指腸潰瘍, 胃炎, 慢性結腸炎, 胃下垂, 慢性肝炎, 慢性膽囊炎, 慢性胰腺炎 등의 疾患에 疏肝理氣法을 活用하여 有效한 結果를 얻었다.

Ⅲ. 考 察

疏泄作用은 舒展과 通暢을 주로 하는 肝의 生理的 機能으로 肝氣의 “喜條達”하는 性質과 不可分의 關係에 있어 人體 氣機의 升降 및 調節과 密接한 關聯이 있다.^{1,6)}

歷代文獻上에 言及된 疏泄에 대하여 살펴보면 《素問 五常政大論》에서 “土疏泄 蒼氣達”이라고 最初로 言及되었는데 이 條文에 對하여 王 등^{21,27)}은 肝이 疏泄을 主한다는 內容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反面, 明 등^{15,20)}은 肝主疏泄한다는 內容으로 主張하고 있어 內經에서 最初로 言及되었던 疏泄에 關한 內容은 論難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後 朱²⁷⁾가 “主閉藏者腎也, 司疏泄者肝也”라고 하여 肝과 疏泄과의 關係를 最初로 言及하였고, 戴思恭이 “肝爲陽, 主疏泄”이라 하여 最初로 肝이 疏泄을 主한다²¹⁾고 하였으나 疏泄作用을 단지 精液排泄의 側面에서만 理解하였다.²¹⁾ 그 후 陳¹³⁾은 土는 木氣를 得해야 疏通하고 生氣를 갖는다고 하여 疏泄作用이 脾胃의 運化作用에 影響을 준다고 하였고, 唐⁵⁾은 疏泄作用을 水穀運化側面에서 理解하였으며, 吳鞠通²¹⁾은 疏泄作用을 大小便과의 關係로 보았다.

現代臨床에서 言及된 疏泄作用으로 朱²⁷⁾가 調暢情志, 脾胃의 消化機能維持, 通利三焦, 通調水道와 女子의 月經 및 男子의 排精을, 吳²⁰⁾가 精神情志活動의 調節, 全身氣機의 調暢, 脾胃의 水穀運化, 膽汁의 分泌와 排泄促進을, 王²¹⁾이 脾胃의 消化作用, 二便協助, 氣機의 調暢, 情志의 調暢을, 蒲²⁸⁾가 氣機의 調暢, 精血과 津液의 輸布 및 代謝調節, 脾胃의 運化促進을, 饒¹⁸⁾가 疏暢氣機, 脾胃의 運化作用促進, 全身 氣機의 流通, 精血津液의 正常運行을 推動을, 張²⁶⁾이 人體氣機의 舒殿, 情志의 疏暢, 疏利氣機, 疏調月經, 疏瀉膽汁을, 魏²²⁾가 脾의 運化作用을 肝의 疏泄作用으로 認識하였다.

以上에서 言及된 疏泄의 淵源과 疏泄作用을 綜合하여 보면 《黃帝內經》에서 最初로 言及된 疏泄의 意味는 肝과의 聯關性을 두기에는 醫家들의 論難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朱丹溪의 《格致餘論》에서 肝司疏泄이라 하여 直接的으로 肝과의 關係를 最初로 言及하였으며, 肝主疏泄

은 戴思恭이 最初로 言及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疏泄作用에 대하여 明代以前에는 주로 精液排泄의 側面에서 理解하고 있지만 清代以後부터 最近에 이르러서는 人體 氣機의 升降과 氣機調暢, 血量의 調節과 血液의 運行, 水津의 通調, 陰精의 藏泄, 物質代謝, 脾胃의 水穀運化, 精神活動, 婦女月經, 膽汁分泌, 疏利三焦, 通調水道 및 大小便의 二便을 協助하는 機能이 모두 疏泄作用과 關聯이 있다 하여 疏泄의 範圍를 擴大解釋하였다.

疏泄作用과 關聯된 病證에 대하여 살펴보면 《黃帝內經》에서는 飧泄食減, 嘔血이 記載되었고, 林⁸⁾은 疏泄作用失調로 肝鬱하면 咳, 脹, 嘔吐가 된다고 하여 疏泄作用失調로 인한 病證을 言及하였으며, 秦¹²⁾은 疏泄作用失調로 인한 病證을 太過와 不及의 兩方面으로 보고서 疏泄太過한 것은 肝氣證, 疏泄不及한 것은 肝鬱證이라고 하였고, 趙¹⁰⁾는 氣鬱證의 原因을 肝의 疏泄作用失調로 보았다. 《醫學求是》⁹⁾에서는 吐瀉, 吳鞠通²¹⁾은 小便短赤, 不得大便을 言及하였으며, 俞²³⁾는 疏泄作用이 失調된 것을 木鬱이라 하는데 脇痛, 胃脘脹痛, 腹痛, 泄瀉, 閉經, 梅核氣, 乳核, 奔豚氣, 疝氣 등이 木鬱의 病證이라 하였고, 葉¹⁷⁾은 急性乳腺炎, 早期肝硬化, 急性이 腺炎, 急性肝炎, 急性膽囊炎, 膽石症, 膽道蛔蟲, 膽汁返流性胃炎이, 李²⁴⁾는 胸脇痛, 乳房痛, 少腹脹痛, 月經痛, 經閉 등이, 胡²⁹⁾는 胸脇支滿, 小腹脹疼, 月經不調, 中脘痞滿, 納穀不香, 噯氣頻繁, 大便不暢이, 張²⁵⁾은 月經不調가, 胡³⁰⁾는 胸悶脹痛, 少腹滿, 噯氣嘔惡, 太息, 精神抑鬱, 耳聾閉塞, 心中煩悶, 手足厥冷, 脊背惡寒, 小溲淋瀝, 遺溺尿頻, 陽痿疝氣, 泄利下重 등이, 魏²²⁾는 胃十二指腸潰瘍, 胃炎, 慢性結腸炎, 胃下垂, 慢性肝炎, 慢性膽囊炎, 慢性胰 腺炎 등이 疏泄作用의 失調로 인하여 나타나는 病證이라고 言及하였다. 徐¹⁶⁾는 疏泄作用이 失調하면 肝氣와 肝鬱의 兩方面의 病證이 나타나는데 肝氣證은 疏泄作用이 太過한 것으로 急躁易怒, 胸脇滿疼痛, 少腹脹痛 등의 病證이 나타나고, 肝鬱證은 疏泄作用이 不及한 것으로 胸悶脹痛, 腹脹噯氣, 食慾不振, 月經不調, 更年期乳房脹痛 등의 病證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閻¹⁹⁾은 肝氣證으로 煩躁易怒, 胸脇脹滿, 胸腹痛 등을, 肝鬱證으로 胸腹滿悶, 少言寡語, 意志消沈, 善太息 등을 言及하였다.

以上에서 言及된 疏泄作用의 失調에 의한 病證을 要約하여 보면 疏泄作用이 太過하면 肝氣證이 發生하고 疏泄作用이 不及하면 肝鬱證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脇痛, 乳核, 奔豚氣, 疝氣, 急性乳腺炎, 胸脇痛, 脇肋支滿, 胸脇滿疼痛, 胸悶脹痛, 耳聾閉塞, 乳房痛 등의 病證은 疏泄作用의 失調가 氣機의 調暢에 影響을 주어 나타난 氣機失調障導로 理解할 수 있으며, 飧泄, 食減, 嘔吐, 脹, 胃脘脹痛, 腹痛, 泄瀉, 急慢性胰腺炎, 少腹脹痛, 中脘痞滿, 納穀不響, 噯氣, 食慾不振, 嘔惡, 泄利下重, 胃十二指腸潰瘍, 胃炎, 慢性結腸炎 등의 病證은 脾胃의 運化에 影響을 미쳐 나타나는 消化障導로, 梅核氣, 急躁易怒, 善太息, 精神抑鬱, 煩躁易怒, 少言寡語, 意志消沈 등의 病證은 精神情志活動에 影響을 주어 나타나는 情志障導로, 經閉, 月經痛, 月經不調 등의 病證은 女子의 月經과 關聯된 月經障導로, 小便短赤, 不得大便, 大便不暢, 小溲淋瀝, 遺尿, 尿頻 등의 病證은 二便障導로 理解할 수 있으며, 疏泄作用과 關聯된 現代的인 疾

患은 肝硬化, 急慢性肝炎, 膽石症, 膽道蛔蟲, 膽囊炎 등의 肝膽疾患, 胃十二指腸潰瘍, 胃炎, 結腸炎, 脾臟炎 등의 脾胃疾患과 月經疾患 및 泌尿生殖器疾患 등이 疏泄作用失調과 關聯된 것으로 理解할 수 있었다.

IV. 結 論

疏泄의 概念과 病理 및 病證에 關하여 考察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疏泄의 概念에 關하여 《素問 五常政大論》에서 “土疏泄 蒼氣達”이라고 最初로 言及된 以來, 朱丹溪가 肝司疏泄, 戴思恭이 肝主疏泄이라 하여 精液排泄의 意味로 認識하였으나 清代以後에 이르러 唐容川과 王峰이 비로서 그 概念을 脾胃의 消化作用, 二便의 協助 및 氣機의 調暢으로 擴大하였다.
2. 疏泄病理는 疏泄作用의 太過와 不及에 의하여 주로 氣機가 失調되는 것으로 肝氣證과 肝鬱證을 招來한다.
3. 疏泄失調에 의한 病證은 氣機失調障礙, 情志障礙, 消化障礙, 月經障礙, 二便障礙 등과 關聯된 病證으로 要約할 수 있다.
4. 疏泄失調과 關聯된 現代的인 疾患은 대체로 肝膽疾患, 脾胃疾患, 月經疾患 및 泌尿生殖器疾患 등과 關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參 考 文 獻

1. 金完熙, 崔達永: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p. 140.
2. 金定濟 外: 東醫肝系內科學, 서울, 集文堂, 1986, p. 27.
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 53, 79, 137, 144.
4. 慶云閣: 醫學摘粹,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3, p. 270.
5. 唐容川: 血證論, 臺北, 力行書局有限公司, 1984, p. 11.
6. 楊醫竝 主編: 中醫學問答,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p. 16.
7. 李東垣 外: 東垣十種醫書, 格致餘論,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 472.
8. 林佩琴: 類證治裁, 서울, 成輔社, 1980, pp. 185~186.
9. 章眞如 編: 肝膽論, 湖北, 湖北科學技術出版社, 1986, pp. 4~5.
10. 趙獻可: 醫貫,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 35.
11. 周學海: 讀醫隨筆,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 188.
12. 秦伯米: 謙齋醫學講稿,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p. 94~95.
13. 陳士鐸: 石室秘錄, 서울, 杏林書院, 年度未詳, p. 151.

14. 陳潮祖：中醫病機治法學，四川，四川科學技術出版社，1988，pp.334~337.
15. 明宇：“肝主疏泄”的理論原出《內經》本旨，上海中醫藥雜誌，5：39~40，1988.
16. 徐登園：肝氣與肝鬱，肝熱與肝火議，遼寧中醫雜誌，9：10~11，1989.
17. 葉挺興，游聞泓：疏肝法的臨床運用，江蘇中醫雜誌，12：5~6，1987.
18. 饒宏孝：“肝主疏泄”之淺見，上海中雜誌，9：40，1988.
19. 閻自力：肝氣肝鬱證治小識，山東中醫雜誌，3：11~12，1990.
20. 吳教序：論肝主疏泄，上海中醫藥雜誌，3：39~40，1985.
21. 王峰：肝主疏泄的源流，含義沿革考，北京中醫學院學報，6：13~14，1988.
22. 魏康伯：疏肝理氣法治療脾胃病，浙江中醫學院學報，5：31~33，1982.
23. 俞長榮：“木鬱達之”法在臨床上的運用，福建中醫學，6：9~11，1982.
24. 李克吾：疏肝法及其常用方藥的臨床運用，中醫雜誌，8：61~63，1983.
25. 張問渠，劉智壺：肝鬱證的臨床治療舉隅，北京中醫雜誌，6：23~24，1988.
26. 張震：從“肝病”患者之植物神經功能失調看“疏瀉”的實質，雲南中醫雜誌，1：1~3，1982.
27. 朱邦賢：“肝主疏泄”的理論非出于《內經》本旨，上海中醫藥雜誌，2：2~4，1987.
28. 蒲曉東：“敷和”替代“疏泄”無實際意義，上海中醫藥雜誌，9：38~39，1988.
29. 胡國堂：鬱證論治 議，遼寧中醫雜誌，12：26~27，1986.
30. 胡敏仙：肝氣不升初探，北京中醫雜誌，4：17~18，1987.